

2023-04-075

BDI Ins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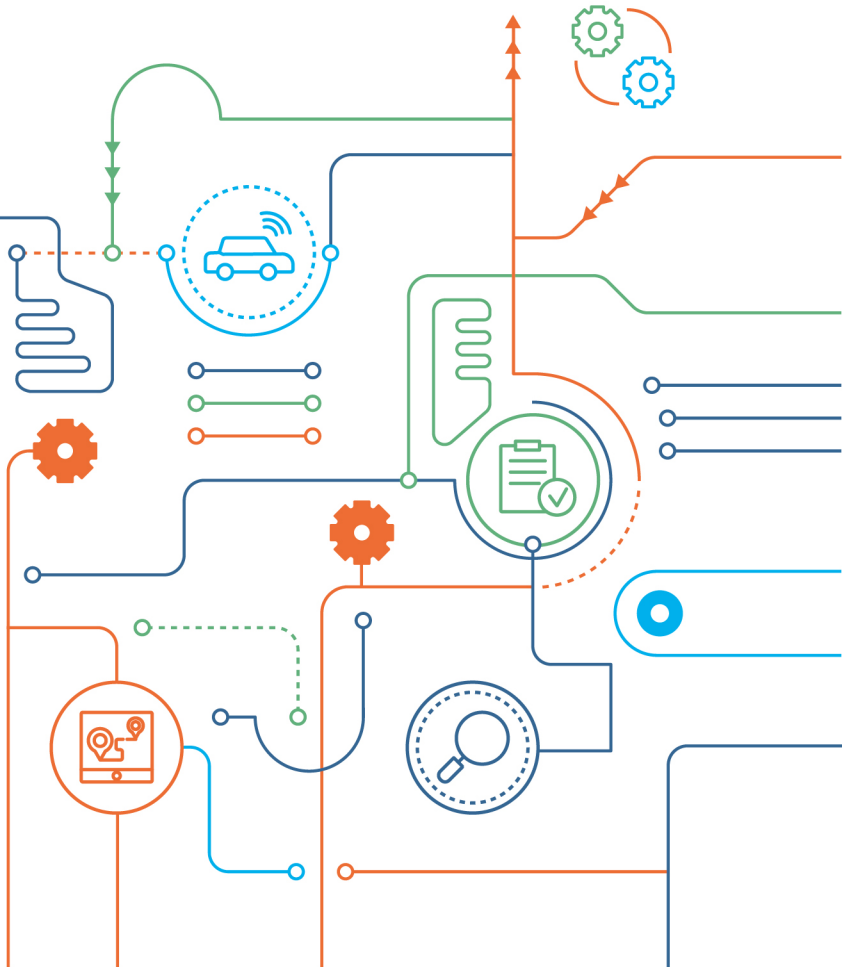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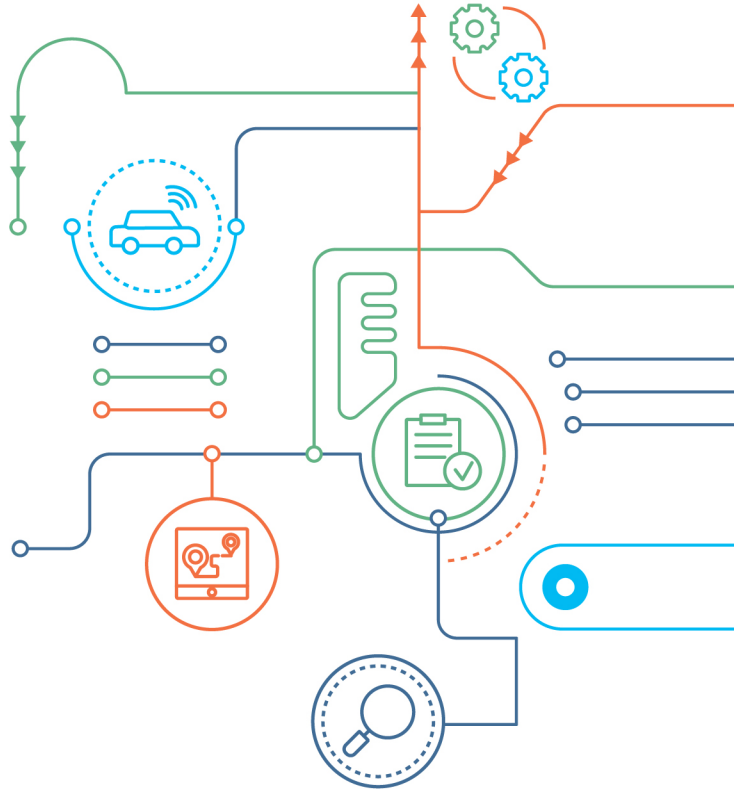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지역 산업단지의 ESG 대응 전략

김도관 · 주수현 · 이종필 · 장찬민

BDI 부산연구원
BUSAN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I. ESG 경영의 중요성	4
II. 우리나라 ESG 경영의 도입과정	7
III.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대응 SWOT 분석	22
IV. 부산지역 산업단지의 ESG 대응전략 및 과제	36

요약

- ESG가 글로벌 트렌드로 등장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국가까지 ESG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으므로 협의의 정의에서 '기업'에 국한할 경우에 'ESG 경영'이라 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 등 6개 지자체는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경상남도는 작년에 지자체 주도의 ESG 경영 확산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올해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일 정도로 ESG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도 산업단지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ESG 정책 홍보 등 활력제고(Energy), 역량강화 등 지원 강화(Support), 조례 제정 등 거버넌스 구축(Governance), 계획 수립 등 공공선도(Public Leading)와 같은 전략과 함께 ESG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함

활력 제고 (Energy)	★정책홍보 ★인증	(E1) ESG 경영 관련 정책 홍보 강화 (E2) ESG 관련 포털 운영 (E3) ESG 우수기업 지정 (E4) ESG 경영 관련 인증 지원
지원 강화 (Support)	★역량강화 ★자금 지원	(S1) ESG 자거진단 및 컨설팅 지원 (S2) ESG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S3) ESG 교육 및 인재양성 (S4) ESG 펀드 조성
거버넌스 구축 (Governance)	★조례 제정 ★ESG 네트워크	(G1) ESG 조례 제정 (G2) ESG 위원회 설치 (G3) ESG 경영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G4) ESG 포럼
공공선도 (Public Leading)	★계획 수립 ★경영지표 도입	(P1) ESG 기본계획 수립 (P2) ESG 경영성태계 활성화 계획 (P3) 부산형 ESG 경영지표 (P4)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P5) 그린 산업단지 조성 확대

ESG 경영의 중요성



1. ESG 경영

- 넓은 의미에서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는 흐름을 뜻함(관계부처 합동a, 2021)
- 협의의 의미로 ESG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환경적 영향, 사회적 책임, 올바르게 투명한 지배구조를 주로 염두에 둔 경영의 핵심요소라 정의함(관계부처 합동b, 2021, 김도관 외 2022)
-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국가까지 ESG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으므로 협의의 정의에서 ‘기업’에 국한할 경우에 ‘ESG 경영’이라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균형있게 다루는 경영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음
-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전략 요소이자 기업 생존의 필수적 요건이 되기까지 지속가능경영, 사회적책임경영, 공유가치창출경영, 사회적가치경영 등과 같은 개념이 확장되어 왔음(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외, 2021)
 - 지속가능경영¹⁾이란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리스크 감소와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경영활동을 뜻하는데,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자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기업으로 확장된 것임
 -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경영은 기업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환경보전, 인권존중,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이 기업의 경영품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온 개념임
 -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경영이란 기업이 경제적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활동이며, CSR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조하지만 CSV 경영은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경영임
 - 사회적가치(Social Value)경영은 사회적가치,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 안전, 윤리경영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1) 산업발전법 19조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말함

2. ESG 경영의 중요성

- ESG가 글로벌 트렌드로 등장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1b)
 - ESG 관련 정책은 EU가 주도해왔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발표, '2060 탄소중립 선언'으로 ESG 정책으로 전환함
 -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지속가능성 테마투자 등 다양한 ESG 투자전략²⁾을 마련함(류정선, 2020)
 - 소위 MZ세대들은 기업의 ESG 경영의 진정성 여부를 진지하게 알아본 후에 소비하는 ESG 소비를 하므로 기업은 이들의 구매 활동에 신경을 써야 함
- 시장에서 ESG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업은 자본조달을 위해 ESG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김재필a, 2021)
 - ESG 투자규모는 2016년 22조 8,390억 달러에서 2020년 35조 3010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1.5%나 됨(서스틴베스트, 2021)
 - ESG를 지표로 한 ETF는 2015년 60개에서 2020년 400개 이상으로 6배 넘게 증가함(김재필a, 2021)
-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여러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됨(관계부처 합동a, 2021)
 -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투자가 계속되어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음(신지영, 2022)
 - 지속가능성은 목표인 반면 ESG는 이 목표를 이루게 하는 수단이며 기준임(김재필b, 2021)
 - 기업이 당면한 ESG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신지현, 2022)
-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ESG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목적에 내재화할 필수적 요소임(관계부처 합동a, 2021)

2)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은 ESG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전략이고,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이며, 지속가능성 테마투자는 기후변화·물·재생에너지 등 특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테마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함(류정선, 2020)

- 2019년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가한 181명의 업체 대표들은 기업의 목적을 주주뿐만 아니라 임직원, 고객, 정부, 지역사회 등을 위한 가치 창출이라 선언함(신지현, 2022)
- 환경생태계를 위해 제공하는 환경적 가치는 보존, 회복, 복원, 개선 등을 포함하며, 기업은 환경경영³⁾과 환경관리를 수행함(신지영, 2022)
-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사회·환경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투명·공정한 운영 방식으로 알려지게 되면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음(정원오, 2021)
 - 기업의 평판 및 이미지 개선으로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음
 -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제품의 구매와 선호도를 향상시키고, 골수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어 매출이 늘어날 것임
- MZ 세대들은 기성세대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므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을 선호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음(정원오, 2021)
 -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직원의 개인적 가치도 존중하므로 직장 만족도를 향상시켜 직원의 이직률을 감소시킴
 -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직원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킴
- 갈수록 개별입지보다 계획입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산업단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입주업체가 ESG 경영을 도입하면 그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이 있어 입주업체의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
 -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안과 밖의 가치사슬에 ESG 경영을 도입하면 다른 가치사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유도할 수 있음

3) 환경경영은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여러 활동을 뜻하는 반면, 환경관리는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폐수 등을 관리 및 폐기의 과정을 의미함(신지영, 2022)



우리나라 ESG 경영의 도입과정



1. 정부의 ESG 관련 정책

1) 지속가능경영 확산과 기업공시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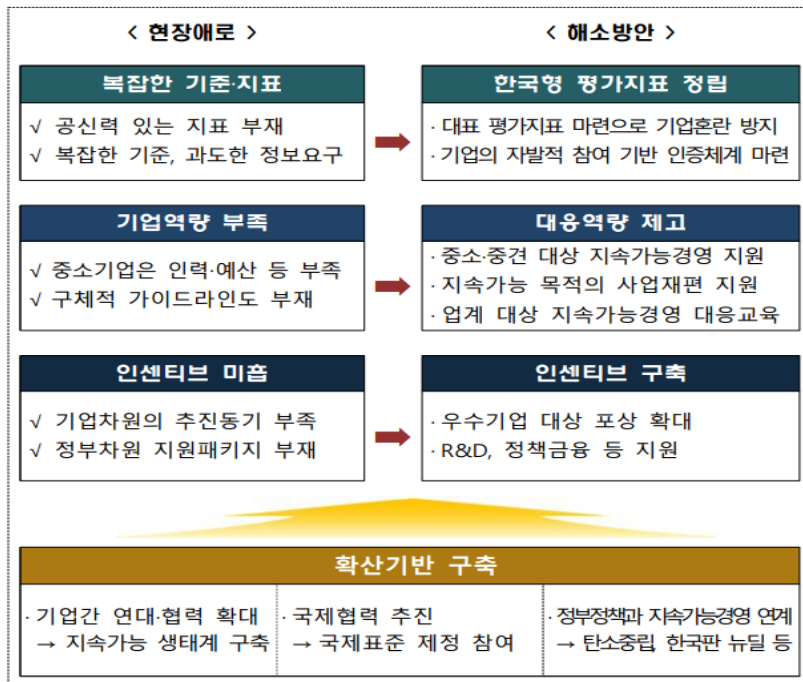
- 정부 차원에서 ESG 관련 정책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2020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확산 대책’이라 할 수 있음(산업통상자원부a, 2020)
 - 추진배경에 “ESG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내 지속가능경영 현황에 “주요 대기업은 ESG 경영을 구체적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파악함
 - 첫 번째 정책과제로 ‘민간주도 한국형 지표(K-ESG) 정립4)’을 제시하여 ESG 지표 개발과 함께 K-ESG 인증을 발급함5)
 - 두 번째 정책과제로 ‘대응역량 제고’에는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기획·실행 방향 등 실무역량을 배양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
 - 세 번째 정책과제인 ‘인센티브 부여’에는 ESG 우수기업에게 R&D 선정에 우대하고, K-ESG 평가결과를 투자기준으로 활용하게 함
 - 마지막 정책과제인 ‘확산기반 구축’에는 기업간 협력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ESG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ESG 지표·활용을 논의하는 국제협의체를 구축함

4)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산업발전법 제18조에 있으므로, ESG 지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5)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ESG 인증평가기관을 지정하며, K-ESG 평가결과 등을 공개·홍보하는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K-ESG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함(산업통상자원부a, 2020)

< 기본방향 >

- ◇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인식 확산, 정책지원을 추진**
 - 탄소중립 시대에서 더욱 더 중요해질 **지속가능경영 대비**
 - 평가지표·정부지원 등 **제도 개선과 인식제고·기반확대 지원**
- ◇ **기업간 비전·성과 공유, 연대·협력**을 유도하는 기반 확보
 -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확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a(2020)

<그림 II-1>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

- 정부는 2021년 1월에 ESG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함(금융위원회 외, 2021)
 -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ESG 책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업체들의 ESG 정보 공개가 더 필요하게 됨
 -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투자자는 이해하기 쉽고, 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시장친화적 공시제도’라 정하고,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함

-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 등 네 개의 추진과제가 있음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거래소의 자율공시를 유도하고,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공시 의무화한 이후에 상장사 전체로 확대함
-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 2016년에 만든 스튜어드십 코드⁶⁾에는 수탁자책 임범위가 환경(E)·사회(S) 이슈가 없는 등 코드 개정 검토가 필요함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함(관계부처합동, 2020)
 -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인식 강화로 인해 그린 경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의 정책 방향을 경제 전반에 디지털혁신을 촉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전환에 대비한 ‘그린 뉴딜’, 그리고 양극화 심화에 대비한 ‘안전망 강화’로 설정함
 - 정책방향에 따른 28개 과제(디지털 뉴딜 12개, 그린 뉴딜 8개, 안전망 강화 8개)와 함께 10개 대표과제(디지털 뉴딜 3개, 그린 뉴딜 3개, 디지털·그린 융복합 3개)를 추진과제로 제안함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과제는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그린 융복합에 포함되었으며,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높은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성, 오염도가 낮은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을 전환하는 사업임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과제의 세부내용은 ①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와 AI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출 원격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스마트산단 조성, ② 에너지 발전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③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팩토리 구축⁷⁾, ④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 하여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하는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사업을 지원하여 온실가스를 줄임, ⑤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함 등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9월에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함(산업통상자원부, 2020)

6) 2016년에 만든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원칙의 적용, 원칙, 안내지침이 있음(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2016)

7) 스마트 생태공장은 폐열과 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공장을 말하며, 클린팩토리 사업은 기업별 배출 특성을 진단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는 설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뜻함(관계부처 합동, 2020)

- 코로나19와 주력산업의 침체로 국가산단의 가동률이 하락 추세이며, 산업단지의 온실가스배출량이 산업부문 대비 76.8%를 차지할 정도이고, 산단 내 편의시설 부족으로 청년층 취업 기피로 산단 입주기업의 스마트 인력이 부족한 상태임
- 이에 따라 글로벌 선도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 저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혁신,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의 추진 전략과 10대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함
- 두 번째 전략인 '저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혁신'이 ESG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4개의 세부 전략이 있음

비전 **한국형 뉴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4만불 시대 선도 !**

목표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 기지 구축			
변화 모습		기존 산단	⇒	스마트그린산단
	산업	전통산업, 굴뚝산업		첨단·신산업
	공간	고탄소·저효율 에너지, 오염·사고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친환경, 안전
사람	청년층 기피, 정주여건 열악		청년인재 유입, 살기 좋은 환경	
추진 전략	산업	디지털 뉴딜	1. [산업] 글로벌 선도 첨단산단 전환 ○ 산업 밸류체인 전단계 디지털인프라 구축 ○ 산업 전주기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 산단별 데이터 연계·활용 체계 마련	
	공간	그린 뉴딜	2. [공간] 저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혁신 ○ (에너지)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선도기지 구축 ○ (환경) 산단별 특화된 자원순환·친환경 청정산단 구현	
		디지털 뉴딜	○ (안전) 통합안전관제시스템 및 재난대응인프라 구축 ○ (물류) 산단형 스마트·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사람	휴먼 뉴딜	3. [사람] 청년 희망 키움 공간으로 탈바꿈 ○ (인재) 청년 스마트 고급인재 양성 ○ (일자리) 산단 일자리 창출 강화 ○ (정주) 문화·생활·복지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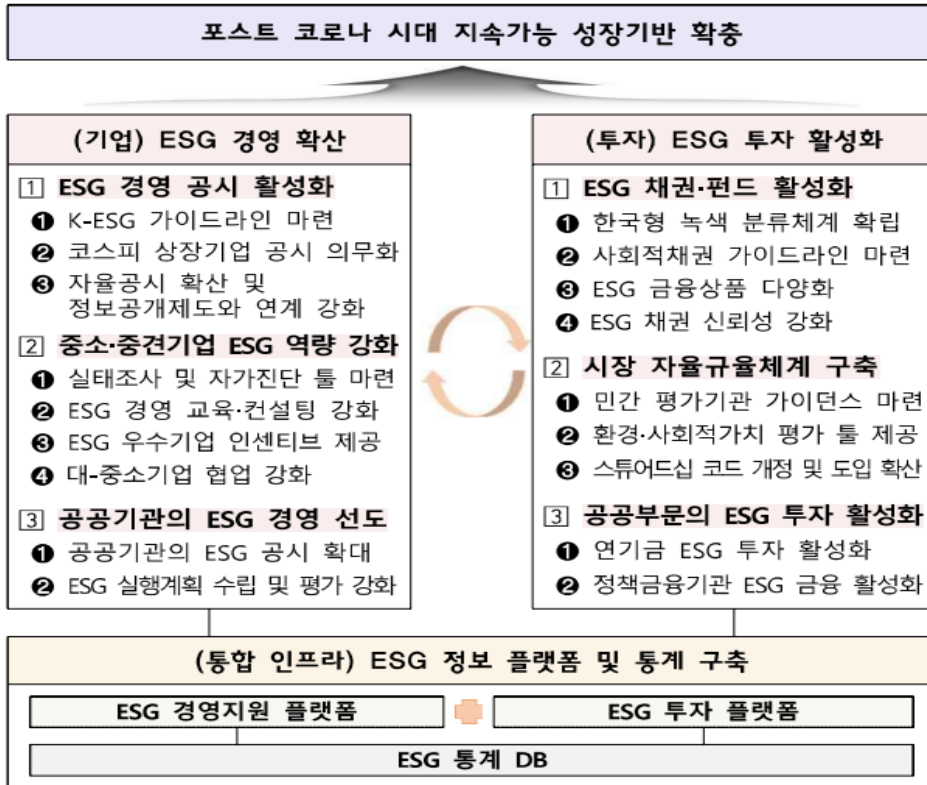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

〈그림 11-2〉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서의 실행 목표와 추진전략

2) ESG 인프라 확충과 K-ESG 가이드라인

- ESG가 핵심으로 등장하는 정책은 2021년에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ESG 인프라 확충 방안'임(관계부처 합동b, 2021)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ESG가 부상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 2021년 3월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라고 발표함
 - 추진방향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ESG 투자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임
- 정부는 2021년 말에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개발 프로세스는 글로벌 ESG 지표 정합성 검토, 국내 산업계 ESG 특수성 반영, 국내 ESG 관련 법·제도 정합성 검토의 3단계를 거쳤음(관계부처합동a, 2021)
 - 가이드라인의 목차는 ESG의 개념 및 논의 등 ESG 이해, 추진배경 등 K-ESG 가이드라인 개요, 기본 진단항목 체계 등 K-ESG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ESG 평가 및 공시지표 안내가 있는 부록임
 - 분류 체계는 먼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뿐만 아니라 정보공시(Public)를 추가한 4개 영역으로 대분류를 설정하고, 17개 범주, 27개 분류번호, 27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됨
 - 27개 진단항목의 정의서에는 항목 설명, 성과 점검, 점검 기준이 있으며, 점검 기준에 점검 기준 적용방안이 단계별 점수⁸⁾를 0점에서 100점까지 있어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8) 단계는 5단계(총족 개수를 최소 1개부터 최대 5개로 다섯 가지로 구분하기도 함)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는 0점부터 100점까지 25점씩 증가하는 반면에 3단계는 50점씩 증가함(관계부처합동 a, 2021)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1)

〈그림 II-3〉 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 방안

- 2022년에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ESG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방향은⁹⁾ ‘미래대비 선도경제’이며, 이 중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과제가 ESG 관련 내용임(관계부처합동, 2022)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인센티브 마련, ESG 생태계 조성이라는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됨
 - (온실가스 감축)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마련, 배출권 총량과 할당 방식에 대한 재검토, 원전 비중 제고를 통한 에너지 믹스의 재조정 등임
 - (탄소중립 인센티브 마련) 재정·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투자 유도,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한 저탄소 소비를 활성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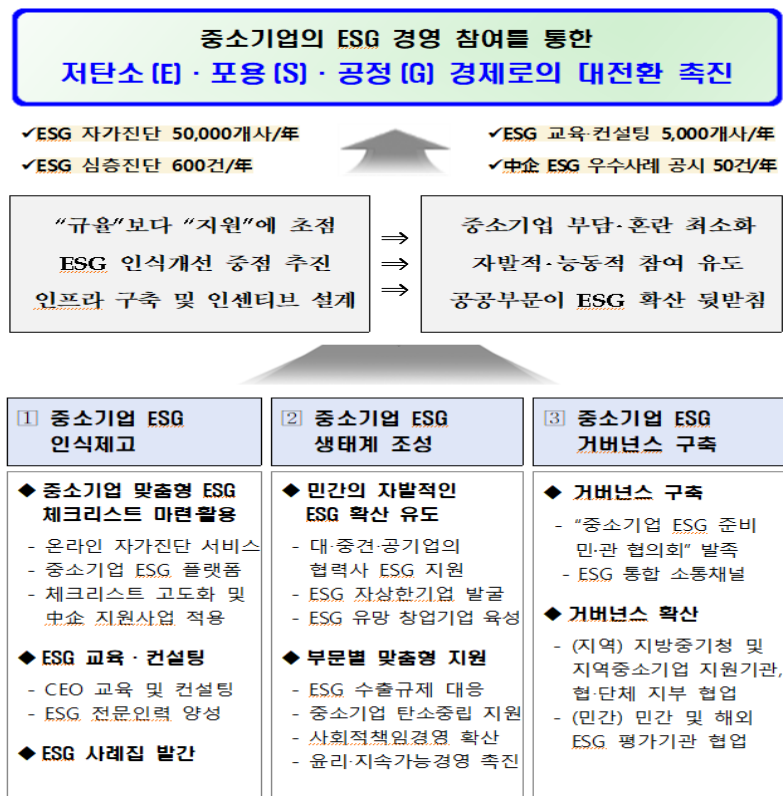
9) 새 정부는 경제정책 목표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으로 정하고,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방향과 함께 당면현안으로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로 설정함(관계부처합동, 2022)

- (ESG 생태계 조성) 2022년 하반기에 7대 중점과제¹⁰⁾ 중심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공시제도 정비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함

2.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1) 중소기업 ESG 촉진과 ESG 안내서

- 중소벤처기업부는 ESG 인식 및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을 발표함(중소벤처기업부, 2021a)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a)

〈그림 II-4〉 중소기업 ESG 촉진 방안

10) 7대 중점과제는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ESG 채권 발행·투자 활성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ESG 정보 플랫폼 구축, ESG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의 ESG 선도 등임(관계부처합동, 2022)

- 기본방향을 "중소기업의 ESG 참여를 통한 저탄소(E)·포용(S)·공정(G) 경제로의 대전환 촉진"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ESG 인식제고,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의 세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함
-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에 따라 같은 해에 'ESG 경영안내서'를 발간함(중소벤처기업부, 2021b)
 - 'ESG 경영 안내서'는 솔루션편과 이해편으로 나누어 발간되었으며, 전자는 환경경영, 사회적책임경영, 윤리경영을 각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후자는 중소기업이 ESG를 어떻게, 왜, 그리고 무엇인지를 설명함
 - 환경경영은 기업이 친환경적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경영활동을 뜻하며,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용수, 폐기물 등에 대한 분야별 목표 수립여부를 확인함
 - 사회적책임경영은 기업의 활동이 일으키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 방법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자인권, 사회공헌, 공급망, 정보보안, 산업재해 예방 등과 같은 목표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여부로 확인함
 -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영에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업무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비윤리적 이슈 관리, 법규 준수, 정보공개 등이 포함됨

2) 대기업의 ESG 경영

- 주요 대기업은 ESG 관련 전담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관계부처 합동a, 2021), 최근 대기업 그룹사의 신년 경영계획에서 ESG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음¹¹⁾(강봉주 외, 2021)
 - 삼성은 자회사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문은 기존의 환경안전센터와 별개로 2020년에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을 신설하여 환경 및 사회공헌, 공급망, 노동, 인권, 이해관계자 등 5개 기준으로 사업장별 역량을 평가하고, 삼성물산은 석탄화력발전 관련 새로운 사업은 전면 중단하기로 함
 - SK는 2020년에 임직원 이메일에 "ESG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하고 16개의 계열사에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SK주식회사 등

11) 아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서비스 기반 대기업은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ESG 경영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음(강봉주 외, 2021)

8개 관계사는 RE100에 가입을 신청하며, 환경 아젠다를 다룰 환경사업위원회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함

- LG전자는 2019년에 '탄소중립 2030' 계획을 발표하였고,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2050 탄소중립 성장'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여 국내 7개 사업장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운영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함
- 포스코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35% 저감 목표를 세워 2019년부터 3년 동안 1조 800억 원의 환경투자를 하였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2020년 수소환원제철공법으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음
- KB는 2020년 ESG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ESG 분야의 다양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더불어 금융그룹으로서는 처음으로 '탈(脫) 석탄 금융'을 선언하였음
- 카카오도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살펴보고 하고 방향성을 재설정하며, '인권경영 선언문'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만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지를 표명함
- 네이버도 카카오와 같은 방식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전담조직을 만들어 개별 유관부서의 ESG 추진과제를 관리하며, 2020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함
-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10대 그룹 ESG 경영 사례 조사를 하여 대기업의 ESG 경영 트렌드를 SMART로 제시함(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 (Structuring, 기구설치·구조화) 삼성, 롯데, 포스코, 한화, GS는 이미 ESG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LG, 현대중공업, 신세계는 상반기 중에 설치 예정이고, 대부분 ESG 전담조직을 설치되어 있음
 - (Measure, 측정·인증 등) LG와 한화큐셀은 RE100에 가입하였고,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및 롯데케미칼은 탄소공개프로젝트(C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삼성전기와 현대모비스는 환경 관련 특허와 환경인증을 다수 보유함
 - (Alliance, 동맹) 현대자동차,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효성중공업 등이 에너지 얼라이언스와 같은 ESG 동맹을 맺었으며, 삼성엔지니어링과 롯데케미칼은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GS 건설과 LG 유플러스는 건설현장에 적용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함
 - (Relations, 소비자·협력사 관계) SK하이닉스는 협력사 대상으로 무료 ESG 컨설팅을 실시하고, 포스코건설은 협력사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며, 현대제철은 공급망 평가를 실시함

- (Tech, 기술개발·투자) LG와 SK는 공동으로 ‘씩는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현대·기아차는 최대 1조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하여 친환경차에 투자하며, GS 건설은 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술 상용화 연구를 하고 있음

3) 공공기관의 ESG 경영

- 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영평가, 안전, 통합공시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02.07)
 - (경영평가) 윤리경영의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 및 위법행위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며, 경영목표와 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에 대한 신규 평가 등 ESG 관련 평가를 강화함
 - (안전) 20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최초로 반영함
 - (통합공시) 안전·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등 공시항목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여 ESG 경영의 핵심인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달성하고자 함
 - 2022년 2월에 ESG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보호 항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권, 상생협력 등에 대한 경영성과의 정보공개도 확대하였고, 자체 감사보고서 현황, 청령도 평가 결과 등에 대한 공시항목을 추가하였음
 - 아울러 통합공시 항목에 중분류를 신설하였고, 기관운영에 인원, 보수, ESG 경영, 기타로 중분류로 구분하였으며, ESG 경영에는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환경보호, 사회공헌활동, 인권경영 등의 공시 항목을 둠
 - 이러한 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을 도모하고, 민간의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함

2. 지자체 ESG 경영 지원 추진 정책

1) ESG 경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

-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표 II-1>과 같이 광주,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울산 등의 순서로 ESG 경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음(강철구 외, 2022)

<표 II-1> 전국 지자체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 명칭	시행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 7. 23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	2021. 12. 30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 12. 31
경상북도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 3. 3
경기도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 7. 1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 7. 21

자료 : 각 지자체 ESG 조례 참고

- 조례는 목적, 정의, 시장 또는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진계획 또는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임
- 충청남도의 ESG 경영 활성화 사업 지원은 아래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
 -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임
-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충북, 충남, 광주) 또는 10명 이내(경북, 울산)로 되어 있음
 -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ESG 경영 지원 담당 실·국장이 되며, 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 가능함
 -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시도는 부위원장이 위촉직에서 선출되는데, 충북, 경북, 울산이 이에 해당되며, 충남과 광주는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
- 모든 조례에는 기초지자체,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정보 공유, ESG 경영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됨

2) ESG 경영 지원 사업¹²⁾

- 광주광역시 2021년 전국 최초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고, ‘기업 사회 가치 경영(ESG 경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상공회의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함(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2.03.09.)
 - 올해 4월에 ESG 경영 인식 제고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ESG 비대면 및 대면 교육, ESG 관련 정보 제공, 경영진단과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예정임
- 충청남도 2021년에 ESG 공장 신설 추진을 포함한 LG화학 공장 10개를 유치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음(충청남도 보도자료, 2021.08.19.)
 - LG 화학은 생분해 필름, 태양광 패널용 이더넷 전원장치(PoE),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저감, 위생소재 등과 관련된 공장을 차례로 건립하여 ESG 실천기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임
 - 2021년 2차 비상경제상황 점검 회의에서 ESG 경영 이슈를 정부의 ESG 정책의 지역 특성 반영, 업종과 거래구조를 고려한 그룹화 지원 전략, 공공부문 시범 운영

12) 주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만든 광역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조사한 것임

후 민간기업 확산 등으로 제안함(충청남도 보도자료, 2021.09.13.)

- 충청북도는 2021년 조례에 근거하여 ‘기업 ESG 경영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ESG 경영지원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음(충청북도 보도자료, 2022.08.12.)
 - 충북 중소기업 ESG 경영전략의 기본방향을 ‘기업 역량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근거한 ESG 지원’으로 설정함
 - 민관 거버넌스 구축, 중소기업 대상 홍보 및 교육·인력양성, 디지털 전환을 통한 ESG 생태계 활성화, 기업의 자율적인 ESG 경영 확대 지원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경상북도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21년 12월에 한국농수산물유통식품공사와 ESG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경상북도 보도자료, 2021.12.13.)
 - 협약 내용 중 ESG 가치 실천,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촉진 등은 ESG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경북은 축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여 맞춤형 축산악취 개선, 저메탄 사료개발 등 축분 처리방식의 다양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¹³⁾(경상북도 보도자료, 2022.01.23.)
- 경기도는 올해부터 1억 원의 예산으로 ESG 진단평가 지원 사업, ESG 경영 기본교육 과정, ESG 교육 콘텐츠 보급 등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 사업’을 시행함(경기도 보도자료, 2022.02.18.)
 - ESG 진단평가 지원 사업은 ESG 경영을 도입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신용평가사가 직접 방문하여 ESG 수준 및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는 것임
 - ESG 경영 기본교육 과정은 중소기업 임직원의 ESG 경영 이해 및 참여 유도를 위해 ESG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함
 - ESG 교육 콘텐츠 보급은 ESG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해 ESG 콘텐츠 5편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게시하고 3편의 교육용 자료를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단체 및 기관에 보급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ESG 선도기관’으로 선정하여 ESG 경영 도입을 위한 공공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하여 이 모델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임
-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비전을 ‘ESG 글로벌 스타시티 울산’으로 설정하고, 지속성장하는 그린 경제, 세계와 나누는 울산, 참여하는 울산시민 등

13) 축산업의 투자 계획은 축사시설 개선 및 미래형 축산업 기반 조성 확대 427억 원, 가축개량 및 사육기반 안정화 293억 원,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119억 원, 가축분뇨 적정처리 269억 원 등 총 1,108억 원임(경상북도 보도자료, 2022.01.23.)

로 목표를 제시함(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08.24.)

- 추진방향¹⁴⁾ 중 ESG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은 탄소 중립시대 그린스마트 스타시티 도약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산업 분야의 글로벌 그린 에너지 허브 확장 사업이 대표적인 ESG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2021년에 울산광역시는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과 ESG 평가 지원 업무를 체결하여 한국기업데이터가 울산 기업에 적합한 ESG 모형과 지표를 마련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ESG 대응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함(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08.17.)
-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상남도는 지자체 주도의 ESG 경영 확산사업을 2021년에 5월에 추진하였음(경상남도 보도자료, 2021.08.20.)
 - 경상남도, 한국생산성본부, (주)나이스디앤비, 창원상공회의소, 12개 기업이 협약을 맺어 약 3개월 동안 ESG 서류 평가, 현장실사, ESG 컨설팅 지원 등 1단계 사업을 시행하였음
 - 경상남도는 ESG 2단계 확산사업을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였으며(경상남도 보도자료, 2021.10.01.), 올해도 7월부터 10월까지 ESG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하고 있음¹⁵⁾(경남테크노파크, 2022.7.11.)
 - 경상남도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경남형 ESG 인식 확산을 위해 올해 4월에 기술교류회를 개최함(경상남도 보도자료, 2022.04.21.)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¹⁶⁾’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한 (주)카스원, (주)삼현, (주)미래제어, (주)티에스티, (주)삼림 등 5개사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개발 과제가 선정됨(경상남도 보도자료, 2022.05.30.)
- 서울특별시시는 올해 업무보고에 ESG 추진계획을 포함하였고, 5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함(서울특별시 결재자료, 2022.05.06.)
 - 이에 따라 추진방향을 공공부문부터 ESG 경영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정함

14) 다른 추진방향은 생태문화 자원 기반 울산형 교류모델 특화, 세계 시민과 함께 사는 코스모폴리탄 시티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기반 구축이며, 경제산업, 문화사회, 지역사회기반, 정책추진기반 등 4개 분야에 총 50개 사업을 제안함(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08.24.)

15) 아직 ESG에 대한 인식이 낮아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데 애로가 많지만, 2021년에 42개사가 모집되었고, 올해도 40개사가 모집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16)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을 위해 전국의 10개 시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기술개발 분야 과제를 지원하는 것임(경상남도 보도자료, 2022.05.30.)

- 또한, 추진전략을 공공부문 ESG 시정 운영기반 구축, ESG 우수기업 우대, ESG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로 정하고, 9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함

〈표 II-2〉 서울 ESG 추진전략 및 과제

전략	추진과제
공공부문 ESG 시정 운영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 ② 투자·출연기관 평가시 환경지표 반영 강화 ③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확대
ESG 우수기업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계약(공사·용역·물품)시 ESG 우수기업 확대 ⑤ 민간위탁시 ESG 우수기업 우대 ⑥ 시금고 지정시 녹색금융실적 평가
ESG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경제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⑧ ESG 기업 기술개발·창업 지원 ⑨ ESG 경영 전환 컨설팅 지원

자료 : 서울특별시 결재자료(2022.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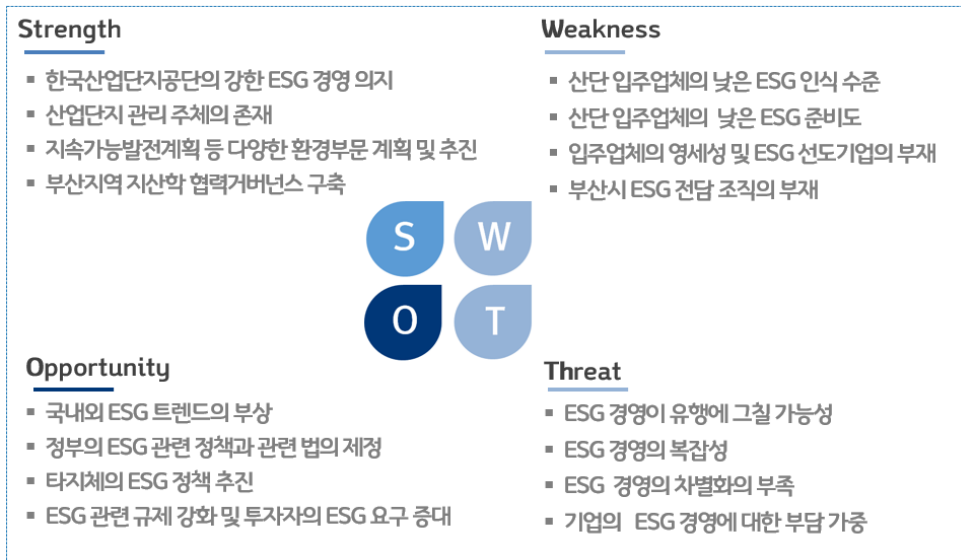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대응 SWOT 분석



1. 개요

-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대응을 위해 한 SWOT 분석을 하고자 함
- 산업단지 ESG 대응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경제진흥원, 개별 관리공단 등), 입주업체, 부산광역시 등을 포함하므로 ESG에 대응에 유리한 요인 중 부산광역시와 관련된 것은 기회 요인이 아니라 강점 요인이 되는 것임
 - 또한, 전국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한 관리주체도 ESG 대응에 유리하면 강점 요인으로 분류함



〈그림 III-1〉 ESG 대응 SWOT 분석

2. 강점(Strength)

1) 한국산업단지공단¹⁷⁾의 강한 ESG 경영 의지

- 2021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비전을 “산업단지의 K-ESG 허브”로 정하고 3대 전략 방향과 12개 전략 과제를 발표할 정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강함(김도관 외, 2022)
 - 3대 전략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E), 협업 기반의 사회적 책임 확산(S),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구축(G)임
 - 각 E, S, G의 전략방향에 3개, 5개, 4개의 전략과제와 함께 에너지자급자족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표 실행과제도 제시함¹⁷⁾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례에서 설명한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 등 산업단지 특화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김도관 외, 2022)
 -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입주기업에 대한 ESG 경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 또한, ESG 전담조직과 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5개 회사와 창원대학교의 기술과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아울러 입주기업 대상의 네트워크 포럼, ESG 지표 개발,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2) 산업단지 관리 주체의 존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 완료된 27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경제진흥원, 자체 관리공단 등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하고 있음(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http://bici.bepa.kr/>(접속일 : 2022.09.29.))
 -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명지녹산국가산업 단지의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중 협업화단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사하사무소)이 관리함
 - 21개 일반산업단지는 부산시가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기존단지)와 명례일반산업단지는 자체 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함

17) 세부적인 내용은 김도관 외(2022)를 참고하기 바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인 생곡, 미음,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하여 관리됨

〈표 III-1〉 부산지역 산업단지 관리기관 현황

구분	관리 산업단지	관리기관 위치(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강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하사무소)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협업화단지)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기존단지)	사하구
부산경제진흥원 (동부사무소)	정관, 정관농공, 장안, 기룡1·2, 정관코리, 부산신소재, 반룡, 오리, 에코장안	기장군
부산경제진흥원 (서부사무소)	신호, 화전, 모라, 부산과학, 강서보고, 지사2, 성우, 풍상, 정주	강서구
부산경제진흥원 (센텀사무소)	센텀시티, 회동석대	해운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생곡, 미음,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강서구

자료: 부산경제진흥원 웹페이지, <http://bici.bepa.kr/>(접속일 : 2022.09.29.)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ESG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부산광역시도 ESG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ESG 경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위탁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이 실행할 수 있음
 - 두 관리기관이 능동적으로 ESG 경영 지원을 추진하면 자체 공단에도 영향을 주어 입주기업의 ESG 경영 준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임

3) 지속가능발전계획 등 다양한 환경부문(E) 계획 및 추진

- 2021년부터 5년간 부산광역시 1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음(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12.20.)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와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함
 - 비전을 ‘현재와 미래의 조화 속에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지속가능한 부산 구현’이라 정하고, ‘누구나 즐거운 부산’, ‘어디나 쾌적한 부산’, ‘더불어 풍요로운 부산’, ‘다 함께 소통하는 부산’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함
 - 총 17개의 목표, 66개의 세부목표와 함께 107개의 이행과제를 제안함
 - 목표 중에서 환경(E)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자원순환형 생산과 소비 지향, 클린 에너지 확보와 현명한 소비이고, 사회(S)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로 사회통합 촉진,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조성, 실질적 성평등 실현 등이라 할 수 있음
 - 세부 과제 중에서 환경(E)과 관련된 것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 폐기물 발생 감소, 플라스틱 선순환, 클린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이며, 사회(S)와 관련된 것은 재해에 안전한 사회, 교육 불평등 해소, 부정부패·뇌물수수 근절 등임
- 국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추어 부산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2.04.21.)
 - (저감) ① 미래 에너지 전환, ② 녹색건물 탄소제를 통한 제로에너지 건물 조성, ③ 친환경 대중교통을 통한 저탄소 교통 전략을 추진, ④ 항만 탄소 제로화를 통한 스마트 그린항만을 조성함
 - (이행) ⑤ 자원 재활용 제고와 청소년 그린리더 1만 명 양성 등 시민실천과 참여, ⑥ 그린 산업단지와 ESG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실천, ⑦ 탄소중립 도시에 필요한 1만 명의 혁신인재 양성
 - (선도) ⑧ 수소 항만의 허브와 친환경 그린수소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권 조성, ⑨ 친환경 자동차·선박 생태계 구축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의 육성을 통한 미래형 모빌리티 전환, ⑩ 탄소중립 연구개발 및 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개발

4) 부산지역 지식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부산광역시는 2021년부터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지식학협력과’를 신설하였고, 같은 해에 산학협력 총괄 플랫폼인 ‘지식학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계획하였음(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07.01.)
 - 지식학협력센터의 주요 기능은 산학협력사업 협업 체계 구축, 산학협력 수요 발굴 및 매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요기반 인재양성 등임
 - (재)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광역시 지식학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학협력단을 신설하였음
 - 지식학협력단은 산학의 혁신역량을 모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학 R&D·사업협력팀과 대학혁신인재협력팀을 두고 있음

〈표 III-2〉 지식학협력단의 역할 및 기능

구분	지식학 R&D·사업협력팀	대학혁신인재협력팀
역할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학 R&D 총괄 대응, 대학과 기업의 R&D 역량강화 • 대학기술 기업이전 중개,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 대학기술의 사업화 지원 • 산학협력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의 수요·공급 현황 조사, 수요기반 인재양성사업 발굴 및 연계 • 현장실습지원단 운영(부산형 현장실습지원 플랫폼 구축) • 대학기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협력 모범 사례 구축 • 대학 내 유효자원을 활용한 신규정책 발굴, 대학 내 혁신사업 기획 및 유치 지원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학협력 기획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식학협력 브랜치 조성 및 운영 • 지식학협력 포럼 운영 및 컨퍼런스 개최 • 지식학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학 수요기반 인재양성 • 현장실습지원단 구성·운영 • 산학협력 DB 구축

자료 : <https://www.btp.or.kr/>(접속일 : 2022.10.01.)

- 올해 교육부의 LINC 3.0 공모에 최종 선정된 부산지역 14개 대학¹⁸⁾의 LINC 3.0 사업단장이 참여하는 ‘부산권 LINC 3.0 사업단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2.07.14.)

18) 부산대, 부경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한국해양대, 경성대, 동명대, 신라대 등 일반대학교 9개교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등 전문대 5개교가 참여함(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2.07.14.)

- 협의회는 지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추진하며, 산학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협력하여 대응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할 것임
- 발대식에서 논의된 공동사업은 지식엑스포(가칭), 기업-대학 기술매칭 로드쇼, 기업가정신·창업교육센터 등임
- 동서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올해 9월에 전국 8개 LINC 3.0사업단¹⁹⁾과 ESG 대학연합 발대식을 개최함(부산일보, 2022.09.23.)
 - 발대식에 체결한 ESG 관련 업무협약은 ESG 기반 산학협력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 ESG 기반 대학 인프라-아이디어 공유와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 협업, ESG 관련 교육의 기업과 학생의 연계임
 - 또한, 업무협약에는 대학간 기업협업센터(Industrial Collaboration Center, ICC)의 협업 프로그램과 지역별 가족회사간 연계 기반 및 협력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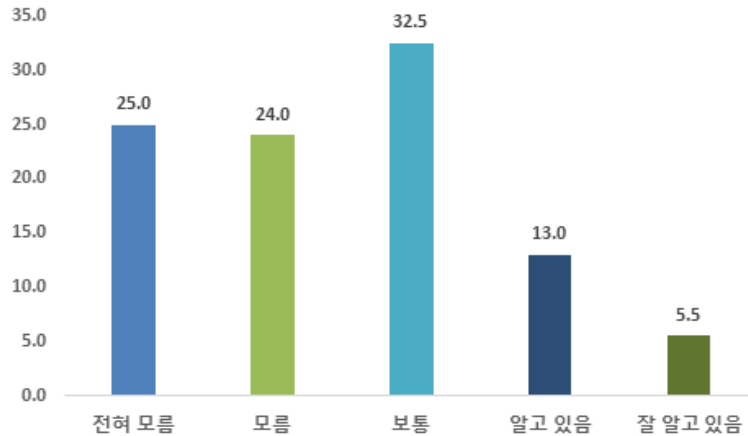
3. 약점(Weakness)

1)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낮은 ESG 경영 인지도

- 부산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 200개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하여 ESG 인지도가 낮은 편임(김도관 외, 2022)
 - ESG 경영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업체는 18.5%에 불과한 반면, 전혀 모르거나 모르는 업체는 거의 절반(49.0%)에 가까움
- ESG 경영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체의 기술개발비와 거래처로부터 ESG 요구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김도관 외, 2022)
 - 업체의 기술개발비가 증가할수록, 다시 말해 기술력이 높은 업체일수록 ESG 경영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거래처로부터 ESG 요구를 받은 업체일수록 ESG 경영에 대한 인지도가 2배 정도 높아짐

19) 참여한 대학은 동서대, 경남대, 동국대, 대전대, 제주대, 호남대, 계명대, 한림대임(부산일보, 2022.09.2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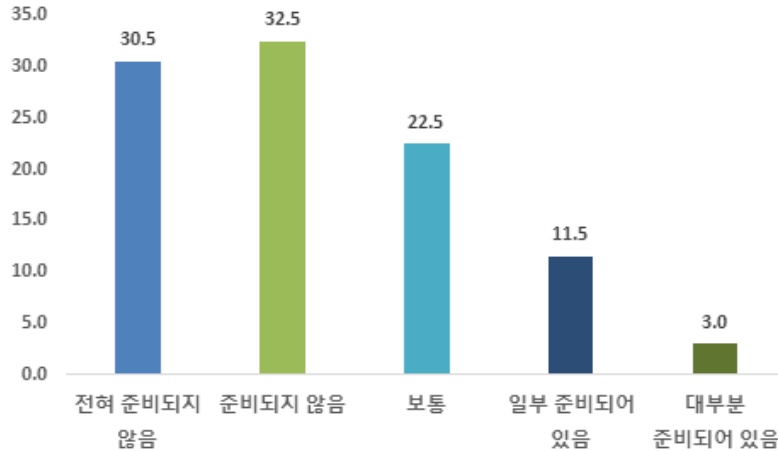
자료 : 김도관 외(2022)

〈그림 III-2〉 ESG 경영 인지도

2)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낮은 ESG 경영 준비도

-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입주업체 대상으로 ESG 경영 대응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에 2.24점에 불과하여 ESG 경영 인지도보다 더 낮은 준비도를 보임(김도관 외, 2022)
 - 일부 준비되어 있거나 대부분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4.5%인 반면, 전혀 준비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는 63.0%나 됨
- ESG 경영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매출액, 기술개발비, ESG 요구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김도관 외, 2022)
 - 매출액과 기술개발비가 많을수록 ESG 경영 준비도가 높아지고, 거래처로부터 ESG 요구 경험을 받은 업체일수록 ESG 경영 준비를 하고 있음

(단위 : %)



자료 : 김도관 외(2022)

〈그림 III-3〉 ESG 경영 대응 준비도

3) 입주업체의 영세성과 ESG 선도업체의 부재

- 2021년 기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부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평균 종업원 수는 14명임
 -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평균 부지면적은 2,636㎡이고, 평균 건축면적은 2,346㎡임
 - 반면, 산업단지 이외에 위치한 업체의 평균 종업원 수는 12명이고, 평균 부지면적은 1,797㎡이고, 평균 건축면적은 1,377㎡로 산업단지 입주업체보다 더 열악함
- 부산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ESG 경영을 요구 받은 업체의 비중은 17.0%에 불과할 정도이며, 거래처의 지원 수준은 보통보다 낮은 2.9점(5점 만점)에 그침(김도관 외, 2022)
 - ESG 경영을 요구한 거래처 중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이 절반 정도 되지만, 이들로부터 ESG 경영 지원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1개 기업에 불과함
 - 이로 보아 ESG 선도기업이 부산에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 부산광역시 ESG 전담조직의 부재

-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ESG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창업벤처담당관에서 '창업벤처 ESG 선도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만 있음
- 부산광역시는 올해 3월에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벤처 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2.03.25.)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지역 중소벤처 기업 ESG 경영 도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데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 부산광역시는 '벤처창업기업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계획'²⁰⁾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ESG 경영 우수기업 인증 및 혁신성장 지원' 전략이 포함됨
 - 해당 전략의 추진과제가 바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체결'이고, 향후 기술보증기금이 추천한 우수기업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ESG 경영 기업을 인증할 것임
 - 또한, 투자기관, 지역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ESG 경영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ESG 신상품 개발 등 금융지원 확대'와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 전략과 관련 추진과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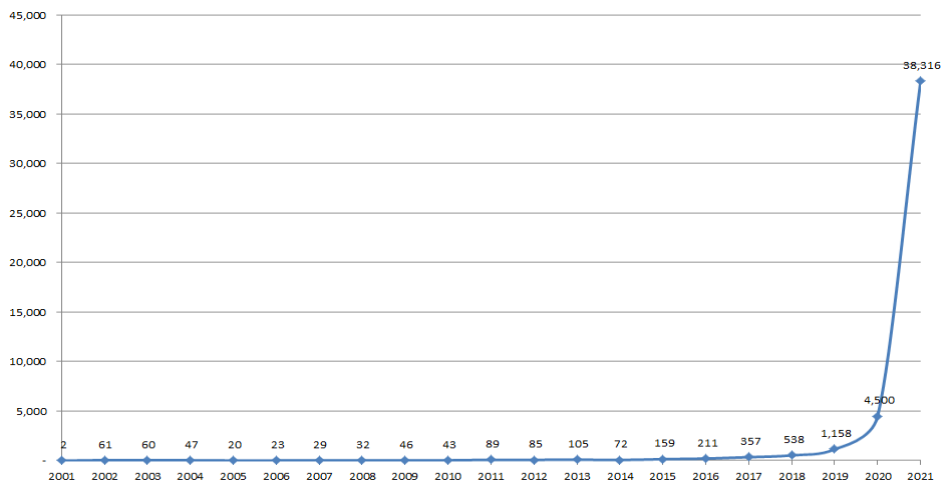
4. 기회(Opportunity)

1) 국내외 ESG 트렌드의 부상

-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국가의 ESG 규정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ESG 투자액도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1.5%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김도관 외, 2022)
 - 유럽 국가들은 법체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주요 상장사의 80% 이상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발간하고 있음
 - 미국도 'ESG 공시 및 단순화' 법이 제정되어 ESG 공시가 확대될 것임

20) 추진계획에는 'ESG 기업 발굴 및 교육컨설팅 지원' 전략도 있으며, 이 전략에 ESG 초기 진단컨설팅·사업화인 '디지털 & 클린부스트 청년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부산 그린테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추진과제가 있음(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2.03.25.)

- 국내 언론에 최근 3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ESG가 등장할 정도이고, 최근 ESG 펀드 순자산의 규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김도관 외, 2022)
 -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별로 변화가 없다가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8.5배가 증가하였음
 - 2020년 3분기 ESG 펀드 순자산은 1조 1,830억 원이었지만, 1년 후에는 6.5배 증가한 7조 5,571억 원이었음



자료 : 김도관 외(2022)

〈그림 III-4〉 연도별 국내 언론 기사의 ESG 빈도(2001~2021)

2) 정부의 ESG 관련 정책 추진

-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2020년에 ‘지속가능경영 확산 대책’, 2021년에 ‘기업공시 제도 종합 개선방안’, ‘ESG 인프라 확충 방안’,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등을 발표하여 ESG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기업공시 제도 종합 개선방안’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2022년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인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인센티브 마련, ESG 생태계 조성과 같은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됨
- 정부는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ESG 평가를 강화하고 ESG 관련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3) ESG 관련 법의 제정 및 시행

-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2019년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 등 환경 관련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2018년 대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5%로 감축하는 목표를 정함(제8조)에 따라 국가의 정책 및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제23조), 재원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제69조), 지자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제68조) 등임
 - 녹색성장법의 주요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시행(제9조),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제11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등임
- 한편, 올해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ESG 영역 중 사회(S) 분야라 볼 수 있으며, 범주는 산업안전이고, 진단 항목은 산업재해율과 안전보건 추진체계 모두 해당됨
 - 2020년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다 강화된 형태가 '중대재해처벌법'이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도 ESG의 사회(S) 분야와 관련됨
 - 중대재해는 사망 등 재해 정도가 크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 당사자가 종사자 또는 시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됨(제2조)²¹⁾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제3조)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제6조)
-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ESG 관련 법안은 97개에 달할 정도이고, ESG와 직접 관련된 조항은 244개임(중앙일보, 2021.09.06.)
 - ESG 부문 중 사회(S) 분야가 71개, 환경(E)이 14개, 거버넌스(G)가 12개이었음

21) 사망자 발생, 부상자의 치료기간과 부상자 수 등에 따라 중대재해로 분류됨

4) 타지자체의 ESG 정책 추진

- 이미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울산광역시는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작년과 올해에 제정하였음
 -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ESG 경영 관련 위원회 설치를 통해 ESG 정책 추진에 대한 심의와 점검을 하고자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ESG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
 - 경기도의 조례에는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 충청남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교적 다양하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ESG 경영 활성화 사업 지원을 나열함
- 3장의 지자체 ESG 경영 사례에서 경상남도는 작년에 지자체 주도의 ESG 경영 확산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특별시도 올해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임
 - 경상남도는 세 번에 걸쳐 ESG 경영 확산사업을 진행하여 기업에 대한 ESG 경영평가와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5개 기업과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ESG 관련 기술과제를 진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작년에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ESG 경영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연계하여 2050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ESG 경영 우선 도입과 기업의 ESG 경영 유도 지원 및 협력모델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5. 위협(Threat)

1) ESG 경영이 유행에 그칠 가능성

- 앞에서 언급한 ESG 트렌드가 메가트렌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나가는 유행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기업이 ESG 경영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투자자와 고객의 눈을 속이는 사례도 발생함

- 예를 들면, 무늬만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 워싱 기업이나 ESG 워싱 기업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가려내는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ESG가 유행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경험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태계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함
 - 정부와 지자체가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공공기관도 ESG 경영을 위해 자체 노력과 함께 기업과 시민들에게 ESG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앞장서서 ESG 경영을 선도해야 함

2) ESG 경영의 복잡성

- ESG 경영에 대한 협의의 정의는 지속적인 성장을 환경적 영향(E), 사회적 책임(S), 올바르게 투명한 지배구조(G)를 주로 염두에 둔 경영의 핵심 요소이므로 환경만 다른 친환경 경영보다 훨씬 폭이 넓고 복잡함
- 정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영역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뿐만 아니라 정보공시(P)를 추가하여 범주와 진단 항목을 제시함(관계부처 합동a, 2021)
 - 범주는 조직이 ESG 경영을 통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 총 27개로 구성됨
 - 진단항목은 앞의 범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세부 항목으로 총 61개나 됨

3) ESG 경영의 차별화의 부족

- 이미 1장에서 다룬 것처럼 ESG 경영은 이전의 다른 경영 개념이 확장되어 온 것이라 비슷한 느낌을 받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사회적책임 경영, 공유가치창출 경영, 사회적가치 경영 등은 주로 사회(S) 영역에 대한 경영을 강조한 것이라 ESG 경영은 이보다 넓은 영역을 포괄함
 - 특히 지속가능경영과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며, ESG 경영의 목표도 지속가능발전이라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

- ESG의 영역과 범주가 커서 기업마다 조금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ESG를 접근해야 함
 - ESG 경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맞게 기업이 ESG를 대응하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에 따라 매년 영역과 범주, 진단항목 중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할지 기업이 결정하여 집중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함

4)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부담 가중

- 환경(E)만 염두에 두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회(S), 지배구조(S)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커짐
 -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준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의 다양한 영역과 범주, 진단항목을 만족시키기가 힘든데, 중소기업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
 - 거래업체로부터 ESG 경영을 요구받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업종별로 ESG 평가기준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내용이나 합의가 쉽지 않음
 - 제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이 중요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건물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도의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이라 비중이 떨어짐
 - 영역으로 보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환경(E)보다 사회(S)와 지배구조(G)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음

IV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대응 전략 및 과제



1. SWOT 분석으로부터 ESG 대응 전략 도출

- III장의 SWOT 분석으로부터 ESG 대응 전략을 도출하되, 강점에 기반을 둔 기회 활용 전략(SO 전략)과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ST 전략)뿐만 아니라 기회를 활용하여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WO 전략)과 위협을 피하고 약점을 줄이는 전략(WT 전략)을 활용함
- (SO 전략)산업단지별로 조금씩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관리주체가 있는 점과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산지역에는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가 있으므로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정부의 ESG 관련 정책의 기회를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 전략(Governing the ESG Management)을 도출할 수 있음
- (ST 전략)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다양한 환경부문의 계획 및 추진을 활용하여 기업의 ESG 경영 부담을 줄이고 ESG 경영이 유행에 그치더라도 기업의 ESG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Energizing the ESG Management)이 필요함
- (WO 전략) 국내외 ESG 트렌드의 부상과 정부의 강력한 ESG 정책 추진 등과 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산단 입주업체의 ESG 인지도와 준비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Supporting the ESG Management) 전략이 필요함
- (WT 전략) ESG의 복잡성과 차별화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줄이고 부산지역 기업의 영세성과 ESG 선도기업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전략(Publicly Leading the ESG Management)이 요구됨



〈그림 IV-1〉 SWOT분석과 ESG 대응전략

1) S-O 전략(거버넌스 구축)

- 4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부산지역 산업단지 관리주체는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체 공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있으며, 이들이 입주한 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산학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식학 협력센터는 산재된 산학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지역에만 있는 차별화된 강점이라 할 수 있음
- 정부의 ESG 관련 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들의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거버넌스 구축 전략(Governing the ESG Management)을 수립해야 할 것임
- ESG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한 ESG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ESG 경영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ESG 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ESG 경영관련 정보 및 기술과 최근 이슈를 전달하는 ESG 경영 워크숍 및 포럼 등 다양한 ESG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김도관 외, 2022)

2) S-T 전략(활력 제고)

- 국가산업단지의 규모와 역할은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에 비해 훨씬 크고 중요하며, 이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다른 관리주체보다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부산광역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다양한 환경분야(E)의 계획과 추진을 하고 있음
- ESG 경영이 유행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ESG 경영 부담이 클 것으로 기업의 ESG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Energizing the ESG Management)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킴
- ESG 경영 가이드북 및 홍보자료, ESG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과 관련한 ESG 관련 정책홍보를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함(김도관 외, 2022)
- 다양한 ESG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ESG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함
- 환경분야(E) 뿐만 아니라 사회분야(S), 지배구조(G)에 있어 다른 업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뛰어난 회사들을 ESG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
- ESG 경영과 연계된 ISO 인증(예를 들면, ISO 14001, ISO 45001, ISO 37001 등²²⁾)에 대해 알려주고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지원함

3) W-O 전략(지원 강화)

- ESG 트렌드는 해외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내로 파급되어 언론에서도 ESG에 대한 내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다룰 정도로 늘어났음(김도관 외, 2022)
- 또한 우리나라 정부도 다양한 ESG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ESG 관련 법의 제정 및 시행에 급속도로 증가함
-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면서 산단 입주업체의 ESG 인지도와 준비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Supporting the ESG Management)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22) ISO 14001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 45001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인증, ISO 37001은 반부패방지경영 인증(인증경영지원센터 웹페이지, <https://iso-certification.kr/>(접속일 : 2022.10.19.))

-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자가진단을 하게하고, 이에 따라 컨설팅을 제공함
- 기업마다 ESG 경영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ESG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함(김도관 외, 2022)
- ESG 관련 조직이나 담당이 필요하지만, ESG 경영에 대해 준비된 인력은 별로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관련된 교육 제공이 필요함
- 또한, ESG 관련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므로 ESG 펀드를 마련해야 함

4) W-T 전략(공공선도)

- 부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규모는 작고 이에 따라 ESG 선도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음
-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영세한 기업의 ESG의 복잡성과 차별화 부족 문제,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큼
- 따라서 부산광역시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전략(Publicly Leading the ESG Management)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부산광역시는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공이 어떻게 ESG를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또한, ESG 조례에 근거하여 ESG 경영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
- 영세한 업체에 맞는 ESG 경영지표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ESG 경영에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ESG 경영 평가지표와 시범적 시행이 필요함

3. ESG 대응 전략별 추진과제

1) ESG 경영의 활력 제고 전략(Energizing the ESG Management)

① ESG 경영 관련 정책 홍보 강화

-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ESG 경영 인지도는 보통보다 낮고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ESG에 대해 모르고 있으므로 ESG 경영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김도관 외, 2022)
- ESG 경영에 대한 가이드북뿐만 아니라 ESG 경영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 제공하여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향후 설립될 ESG 경영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내용의 ESG 경영 관련 책자를 만들어 정책홍보를 주도하게 하며, 설립 전에는 부산광역시가 실행함
- ESG 경영 관련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업체들이 ESG 경영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함



〈그림 IV-2〉 ESG 전략별 추진과제

② ESG 관련 포털 운영

- ESG 경영은 매우 복잡하고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필요함
- 앞에서 설명한 ESG 가이드북, ESG 우수사례 등 정책홍보 자료뿐만 아니라 ESG 평가지표, 자가 진단 및 온라인 컨설팅, 최근 ESG 정보, 각종 행사 및 프로젝트 정보 등을 포털 사이트에 포함시킴
- 부산경제진흥원이 위탁 형식 방식으로 ESG 관련 포털을 운영하다가 향후 ESG 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관시킴
- 다양한 ESG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입주기업을 포함한 모든 지역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함

③ ESG 우수기업 지정

- 부산지역 입주업체의 영세한 규모와 함께 ESG 선도기업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미리 준비한 업체들이 있으므로 이를 발굴하여 널리 알려 ESG 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매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선정된 부산지역 기업 중에서 선별하여 부산지역 ESG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취득세 감면이나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마련함
- 향후 설치될 ESG 위원회에서 ESG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전에는 부산광역시가 선정함
- ESG 우수기업을 지정된 업체들은 직접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다른 업체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유발함

④ ESG 경영 관련 인증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정한 표준은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므로 ESG 경영과 관련된 표준을 인증받아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거나 유럽에 수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환경(E)에 관련된 ISO14001(환경경영), ISO50001(에너지경영)나 사회(S)와 관련된 ISO45001(안전보건경영), 지배구조(G)와 관련된 ISO37001(부패방지) 등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비용과 컨설팅을 제공함
- 향후 설립될 ESG 경영지원센터가 주도하여 ESG 경영 관련 인증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주체가 일부 역할을 담당함

- 공신력이 높은 ISO 인증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으며, ESG에 앞서고 있는 유럽지역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짐

2) ESG 경영의 지원 전략(Supporting the ESG Management)

① ESG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은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알더라도, 정확한 개념과 평가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기업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ESG 관련 포털에 'ESG 경영 자가진단'을 포함시켜 입주업체와 부산지역 업체가 회원에 가입하여 진단을 받고 이에 근거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함²³⁾
- 향후 설립될 ESG 경영지원센터가 포털 운영을 하게 되므로 이를 주도하게 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함
- 업체들은 ESG 이해도와 준비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② ESG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가장 실천하기 힘든 분야는 환경(E)이므로 산학연관 컨소시엄 형태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여 ESG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3장의 경남 사례처럼 산업통상자원부의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보다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함
- 부산광역시 (재)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참여업체의 ESG 관련 기술역량을 높이고, ESG에 민감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음

③ ESG 교육 및 인재양성

- 기업이 ESG 경영을 하고 싶어도 관련 인재가 부족하다면 담당 조직 구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ESG 관련 교육과 인재양성이 매우 필요함

23) 중소벤처기업공단은 중소기업이 ESG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ESG 자가진단'을 웹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웹페이지, <https://kdoctor.kosmes.or.kr/>(접속일 : 2022. 10.02))

- 최근 ESG 관련 트렌드부터 업종별 ESG 특징, ESG 평가지표, ESG 실무 등 다양한 주제를 구성하여 ES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SG 전문가 양성은 대학과 연계하여 학위를 주는 방안도 고려함
- 부산상공회의소나 (재)부산경제진흥원은 ESG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의 연합하여 ESG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업체의 ESG 부서에 필요한 인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업체의 ESG 경영에 대한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음

④ ESG 펀드 조성

- ESG 관련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에는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환경(E) 분야의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펀드 조성이 매우 필요함
- 부산광역시와 지역 은행, 중견기업 등이 참여하는 ESG 펀드를 조성하여 ESG 관련 프로젝트와 우수 기업에 투자함
- 펀드 조성을 통해 ESG 관련 프로젝트의 지원이 가능하고, 우수 기업의 ESG 경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

3) ESG 경영의 거버넌스 구축 전략(Governing the ESG Management)

① ESG 조례 제정

-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인 조례가 필요함
-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ESG 조례에는 목적, 정의, 책무, 기본계획, 위원회 구성 및 운영, ESG 경영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포함시킴
- 부산광역시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부산광역시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함
- ESG 위원회와 ESG 경영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ESG 기본계획과 ESG 경영생태계 활성화의 법적 근거가 됨

② ESG 위원회 설치

- ESG 기본 계획과 실행뿐만 아니라 ESG 경영생태계 활성화 계획과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이를 도와주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함
- ESG 조례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대로 당연직 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두 번에 걸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필요할 때는 추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산광역시가 주도하여 구성하여 운영함
- ESG에 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ESG 경영이 활발히 진행될 것임

③ ESG 경영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ESG 경영은 지자체가 주도하기보다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센터를 설립하여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ESG 경영지원센터는 ESG 경영 관련 정책 홍보, ESG 관련 포털 운영, ESG 관련 인증 지원, ESG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함
- ESG 경영지원센터는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인건비, 사업비 등 예산을 지원함
- 센터의 ESG 경영 관련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업체들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 수준을 높임

④ ESG 워크숍 및 포럼

- 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은 한계가 있으므로 함께 모여 최근의 ESG 정보와 이슈, ESG 우수사례, 기술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ESG 관련 프로젝트를 알아보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함
- 기업이 필요한 ESG 기술과제를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협력하여 수행하는 포럼도 필요함
- ESG 워크숍과 포럼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임

4) 공공의 ESG 경영 선도 전략(Publicly Leading the ESG Management)

① ESG 기본계획 수립

- 산업단지만 ESG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 전체가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부산광역시가 주도하여 산학관민의 주체별로 ESG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시킴
- 부산광역시는 ESG 선도 도시가 되어 벤치마킹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임

② ESG 경영생태계 활성화 계획

- ESG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과 함께 대학이나 단체에도 적용 가능한 경영방식이므로 부산지역 전체의 ESG 경영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 사례처럼 부산광역시가 주도하여 ESG 경영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되, 주로 기업부문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공공부문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함
- ESG 경영생태계가 구축되어 산업단지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업체들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 참여하게 됨

③ 부산형 ESG 경영지표

- 정부는 이미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앞으로 업종별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것지만, 부산지역 상황을 감안한 ESG 경영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시도와 달리 부산은 영세한 부품기업이 많으므로 이에 맞는 ESG 경영지표를 마련해야 함
- 부산광역시가 주도하여 부산형 ESG 경영지표를 만들고 향후 ESG 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
- 부산형 ESG 경영지표에 근거하여 기업의 ESG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한다면 맞춤형 ESG 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ESG 대응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음

④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정부는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ESG 분야의 공시항목을 추가하였으므로 부산지역에 위치한 정부의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대한 노력을 확대할 것임
- 정부의 공공기관처럼 지역의 출자출연기관도 ESG 경영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부산지역의 공공기관이 ESG 경영에 앞장서므로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도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함

⑤ 그린 산업단지 조성 확대

- 부산광역시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그린 산단 90%’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2.04.21.)
- 오리일반산업단지,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형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처럼 신규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기존산업단지에는 선택적으로 하여 같은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온실감축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함(김도관 외, 2022)
- 향후 ‘2050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저탄소 그린 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분야(E)에 앞장서는 산업단지의 모델이 될 수 있음

참고문헌

- 강봉주·이정연, 2021년 ESG 동향 점검, MERI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2021.
- 강철구·고재경·안찬중·예민지, 경기도의 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22.
-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
- 관계부처 합동a, K-ESG 가이드라인 v1.0, 2021.
- 관계부처 합동b,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4, 2021.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2021.
- 김도관·주수현·구윤모·장찬민,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실태분석 및 시사점, 부산연구원, 2022
- 김재필a, ESG 혁명이 온다, 한스미디어, 2021.
- 김재필b, ESG 혁명이 온다 : 미래 전략과 7가지 트렌드, 한스미디어, 2021.
- 대한상공회의소·삼정 KPMG,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 2021.
- 류정선,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금융투자협회, 2020.
- 박광민, 국내외 ESG 정책 및 기업·업종별 사례분석과 시사점, 산업입지 ISSUE & TREN D, No. 33, 2021.
- 부산광역시, 2단계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 지정 신청, 2009.
-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ESG경영연구회,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전략, 자유아카데미, 2021.
- 산업통상자원부a, 지속가능경영 확산 대책, 2020.
- 산업통상자원부b,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 2020.
- 서스틴베스트, 기업 ESG 분석보고서, 2021.
-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 서울형 ESG 지표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까?, 토론회 발표자료, 2021.
- 전교경제인연합회, 10대 그룹 ESG 경영 사례 조사, 2021.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
- 신지영, 지금 당장 ESG, 천그루숲, 2022.
- 신지현, 한 권으로 끝내는 ESG 수업, 중앙북스, 2022.
- 양진우·황영순·이정석, 부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개발 및 관리방향, 부산연구원, 2020.

정원오, 지속가능도시 ESG, 라이스메이커, 20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2021a.
 중소벤처기업부, ESG 경영안내서, 2021b.
 풀무원, 2022 열린주주총회 통합보고서, 2022.
 한국산업단지공단, 2022 산업입지요람, 2022.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현황, 2016.
 한상범·권세훈·임상균,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신문, 보도자료, 인터넷 등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시, 기업 사회 가치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나서”, 2022.03.09.
 경기도 보도자료, “도, 올해부터 중소기업 ‘ESG 경영 기반 조성’ 지원”, 2022.02.18.
 경기도 웹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lidx=570&bldx=47018798&menuId=1590&bcldx=557>(접속일 : 2022.09.01.)
 경남테크노파크, “2022년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2.07.11.
 경남테크노파크, “2021년 경남형 ESG 확산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2021.10.12.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남도, 전국 첫 번째 중소기업 ESG 시범사업 공모 선정”, 2022.05.20.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남형 ESG 확산 위한 기술교류회 개최”, 2022.04.21.
 경상남도 보도자료, “지속가능경영(ESG) 1단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2021.08.20.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남도, ESG 확산으로 탄소중립 실현한다”, 2021.10.01.
 경상북도 보도자료, “경북도, 올해 축산 경쟁력 강화에 1015억원 투자”, 2022.01.23.
 경상북도 보도자료, “경북도, 저탄소 식문화 확산으로 ESG 가치 실현”, 2021.12.1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2022.02.07.
 동구발 웹페이지, <https://www.donggubat.co.kr/>(접속일 : 2022.09.20.)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권 LINC 3.0 사업단장 협의회 출범”, 2022.07.14.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개최”, 2022.04.21.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시, 지자체 최초 ESG 우수 중소벤처기업 인증”, 2022.03.25.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제1회 부산 지속가능발전 포럼 개최”, 2021.12.20.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지역 성장을 위한 지산학 협력의 새로운 도약”, 2021.07.01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시, 생태산업단지 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 2009.10.15.

- 부산경제진흥원 웹페이지, <http://bici.bepa.kr/>(접속일 : 2022.09.29.)
- 부산일보, “동서대, 전국8개 LINC 3.0 사업단과 ESG 대학연합 발대식 개최”, 2022.09.23
- 서울특별시 결재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추진계획”, 2022.05.06.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요즘 또는 ‘기업 ESG 경영’”, 2021.06.22.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상생도시 서울을 위한 ESG’ 주제로 사회공헌 포럼 개최”, 2021.11.23.
- 시지태테크놀로지 블로그, <https://m.blog.naver.com/cgtae777>(접속일 : 2022.09.20.)
-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이에스지(ESG) 글로벌 스타시티 울산으로 도약한다”, 2021.08.24.
-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이에스지(ESG) 평가지원 업무 협약 체결”, 2021.08.17.
- 인더스트리 뉴스, “일주지앤에스, ‘에너지 산업의 IoT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 2022.09.21.
- 인증경영지원센터 웹페이지, <https://iso-certification.kr/>(접속일 : 2022.10.19.)
- 일주지앤에스 웹페이지, <http://www.i-gns.co.kr/>(접속일 : 2022.09.2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웹페이지, <https://kdoctor.kosmes.or.kr/>(접속일 : 2022. 10.02)
- 중앙일보, “전경련, ESG 발의 법안 조항 244개 중 196개가 규제·처벌”, 2021.09.06
- 충청남도 보도자료, “LG화학 공장 10개 2조 6,000억 유치”, 2021.08.19.
- 충청남도 보도자료, “‘충청권 지방은행’으로 지역금융 양극화 해소한다”, 2021.09.13.
-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북도,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지원 준비 ‘착착’”, 2022.08.10.
- 파타고니아코리아 웹페이지 <https://www.patagonia.co.kr/>(접속일 : 2022.09.16.)
- 플무원 웹페이지 <https://www.pulmuone.co.kr/>(접속일 : 2022.09.19.)
- 한국산업단지공단 웹페이지 <https://www.kicox.or.kr/kfactory/ir/etc.do>(접속일 : 2022.07.01.)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도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생태계 구축 선도할 것”, 2021. 11.12.

2023-04-075



연구책임	김도관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참여	주수현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종필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장찬민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발행인	신현석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처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 (051)860-8850, FAX (051)860-8619 홈페이지 http://www.bdi.re.kr
ISBN	979-11-6886-075-9 9332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